

지상에 의하면 우리나라에
 도 앞으로 8년 후면
 전 농수축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
 방된다고 한다. 일부 보도에는
 GATT회의에서 미국이 5년 이내
 에 완전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
 고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을 주장
 하다가 절충되어 8년으로 결정되
 었다고 하면서 8년으로 결정된
 것을 하나의 성과로 여기고 있기
 도 하였다. 이것이 성과인 것인
 가, 무역흑자라고 하여 그 혜택을
 농민들이 그 얼마나 보고 있는
 가, 농수축산물이 마치 물가인상
 의 주범인양 연일 보도하면서 저
 농축산물 정책에 농촌은 헐벗게
 되었고 무역흑자에서 온 여유자
 금은 부동산으로 몰려 농촌의 땅
 이 여러가지 형태로 도시민들의
 손으로 넘어가고 땅 값과 집 값이
 치솟아 영세농민들의 내 땅만들
 기 기대와 저 소득층의 내집마련
 꿈을 앗아간 것이 현실이 아닌
 가, “8년후 완전개방” 그 8년간
 정부에서는 농민을 위하여 무엇
 을 어떻게 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
 우겠는가, 현재도 농촌을 지원한
 다는 것은 수자노름으로 말과 지
 상에서만 오고 갈뿐 실제 농민들
 에게 무엇을 지원하였는가, 농민
 들의 유일한 재산인 농지는 절대
 농지라고 묶어놓아 재산권 행사
 에 지장을 초래해하고 있으며 또
 벼(쌀) 아닌 다른 작목 재배를 극
 구 방지 농촌진흥청의 전 직원들

이 쌀 증산 독려원화 하였던 것도
 얼마전까지의 일인데 이제와서는
 쌀이 남는다고 하여 생산비도 안
 되는 쌀값을 책정하려 하고 있으
 니 농민들에게 부채를 가중케하
 고 이농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으

시론

농업, 8년 시한부



김 남 용
 본회 전무이사

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
 가. 현재 축산도 여러가지 어려
 움에 시달리고 있다. 호황, 불황
 의 주기적인 현상으로 농민들의
 부업형태의 양계, 양돈의 축산은
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며 소의 부
 업만이 아직은 남아 있으나 이 또

한 쇠고기, 유제품의 수입과 소
 비둔화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
 중에 예고와 지도편달도 없이 축
 산물의 오수가 마치 폐수의 주범
 인양 정화시설이 미비된 축산인
 을 무더기 구속하였으며, 지상에는
 이것을 특종기사인양 대대적
 인 보도로 축산인들의 축산의욕
 을 좌절케 하였고 또 국민들에게
 는 축산오수가 폐수의 주 원인으
 로 착각토록 하였다. 우리나라의
 축산업이 어디로 갈 것인가, 정부
 가 하루속히 방향설정을 하지 못
 하면 전 축산인들이 방향감각을
 잃어 우왕좌왕 할 것이며 우왕좌
 왕하는 사이 국제 경쟁력도 향상
 시키지 못하고 수입개방을 맞아
 된서리를 맞은 곡식처럼 쓰러 없
 어지고 말 것이 아닌가, 정부와
 국회에서는 수자노름만 하지 말
 고 무엇인가 양축농민들이 피부
 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
 하겠다.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포
 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. 8년은 결
 코 긴 세월이 아니다. 대책없는
 가운데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
 지 않은가. 어찌 하루인들 허송
 하겠는가, 우리가 대책없이 허송
 하고 있는 중에도 8년을 향하여
 하루하루가 가고 있다. “8년 시한
 부 축산”, 우리의 삶이 8년이면
 끝난다고 생각해 보자. 우리 농
 축산인 모두의 노력 여하에 따라
 8년 시한부가 무궁무진하게 연장
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.